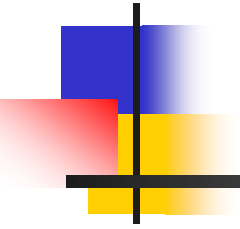


리얼리티 흔들어 대기 2



박 동섭

littleegan@gmail.com



Garfinkel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그 소년과 닮지 않았는가?

- Ethnomethodologist이기도 한 나는 Ethnomethodologist의 얼굴은 ‘벌거벗은 임금님’의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선언하는 꼬마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.
- 즉 Ethnomethodologist의 일은 현지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의 암묵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에 도전해서 그것이 미리부터 있어왔고 공략 불가능한 ‘객관적 사회구조’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의 ‘공동작업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파헤치는 것이다.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실재의 구성과 창조를 도모하는 것이다.



Garfinkel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그 소년과 닮지 않았는가? ‘

- ‘세계에 아직 동화되지 않은 ‘미숙’한 멤버로서의 아이가 이미 성인에 의해 체제화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인 세계에 잠입할 때 어떤 불협화음(異化작용)이 발생한다.
- 이 불협화음의 결과 우리 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가시화된다.
- 이러한 일상의 원만한 수행에 제동을 거는 아이의 행위행위)에 의해서 부상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극히 당연한 생활세계의 구조이다.
- 교사는 그 당연한 생활세계가 도드라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닐까?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‘보통’이라는 것은 이른바 본 적 없는 일과 익숙하지 않은 감정, 기피하고 싶은 사건과 인간 그리고 인간관계, 현실 등에 직면하였을 때 작동하는 일종의 장치이다.
- 말을 바꾸면 ‘보통’이라는 것은 낯선 것들로부터 ‘나’를 어쨌든 숨겨주는 피난처이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‘보통’이라는 것은 본 적 없는 형상, 들어본 적 없는 소리, 맡아 본 적 없는 냄새 등을 ‘보통’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생활세계로부터 배제하거나 자신의 생활세계가 그것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는 자의적인 기준이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‘보통’이 아닌 것과 직면할 때 그것이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.
- 본 적 없는 형상, 들어본 적 없는 소리, 맡아본 적 없는 냄새 등에 직면할 때 우리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츠러든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프랑스 사회학자 Bourdieu는 낯선 것들과 만날 때 익숙한 세계 쪽으로 타성적으로 퇴각하게 되는 몸의 독특한 성향을 *habitus*라고 불렀다.
- *habitus*에는 어떤 형태로든 차이 앞에서 당혹해하는 신체의 추억들이 스며 있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극도의 공포감으로 ‘엄마야’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가는 본능적인 몸 동작에서 승리의 금메달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환호에 답하는 승자의 문화적 제스처에 이르기까지 몸은 각각의 고유한 *habitus*를 드러낸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과 장면에서 들어맞는 ‘보통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찾아도 없다.
- 그러나 ‘보통이고 싶다’라는 생각은 늘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그런데 내가 **보통**으로 있다는 것은 내가 **차별**하지 않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.
- 오히려 우리가 '**보통**'에 안주하는 것으로 인해 이 세계 속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**차별**은 확실히 살아남고 성장해 간다.



보통이라는 것의 권력성

- 즉,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‘보통’에 안주하는 것은 ‘차별’에 있어서 그것 이상 좋을 수 없는 ‘거름’이 된다.
- ‘보통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세계의 표준으로 봤을 때 그 표준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‘보통’의 범주 속에 넣지 않고 싶은 의지의 표명이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이전에 어떤 남자가 식칼을 들고 주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감금해서 하루 종일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다.
- 다음날 주부는 무사히 풀려나고 사건은 해결되었다.
- 그 당시의 사건발생 직후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
- 그것은 사건발생상황으로부터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던 남성에 대한 설득의 풍경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.
-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의 첫 도입부분에 있다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

- 00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작년 12월 시내의 정신병원을 퇴원,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 통원치료를 그만두었다.
- 나는 이 기사의 도입부분에 대해 심한 위화감을 느꼈다.
- 여러분의 생각은?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이 부분 뒤에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의 대책이 상세하게 계속된다.
- 도대체 이 도입 부분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인가?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문제는 사건발생직후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주부를 감금하였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쓰여진 기사이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주부를 감금한 사람이 ‘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’, ‘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’, ‘최근에 통원치료를 그만 둔 사실’은 그 시점에서는 어느 것도 ‘이번 주부를 감금한 일’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그것이 기사의 시작부분에 놓여
서 사건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
하는 부분과 묘한 인과관계를
갖고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
읽혀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
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독자들은 왜 이 사람이 주부를 감금하였는지 그 동기를 기사내용으로부터 찾으려고 할 것이다.
- 그런데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은 기사를 읽는 한 제목인 ‘정신이상자’와 첫 도입 부분 밖에 없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첫 도입부
분과 사건을 관련 지으려고 할
것이다.
- 그 때 ‘단서’가 되는 것이 ‘정신
병원’이라는 말이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이 기사의 구성 방식에도 ‘카테고리화의 권력행사’가 있다.
- 주부를 감금한 사람에게 정신장애라고 하는 카테고리 부여해서 기사내용에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여기서 잠시 ‘카테고리화’란?
- ‘카테고리화’의 문제는 무엇인가? Sacks는 Hot Roadster (Hot Road)라는 짧은 논고에서 이 문제를 단적으로 진술하고 있다(Sacks, 1979).
- Hot Roder 라고 하는 것은 Hot Road를 타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 속에서만 통용되는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들의 카테고리를 사용하면서 거리를 폭주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살고 있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성인들은 젊은이를 Teen age라고 카테고리화 해서 Hot Roder들도 Teen age로서 괄호 안에 넣고 지배적 문화로부터의 이탈로서 관리하고 규제하려고 한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Sacks는 이러한 지배적 문화와 대항적 문화의 일상장면에서의 충돌 혹은 지배적 문화가 대항적 문화를 일상장면에서 미세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Sacks가 문제로 삼는 것은 다음의 2가지이다.
- 첫째 어떤 집단에 들이대려고 하는 카테고리들 당해 집단 이외의 집단이 소유해서 그것이 ‘지배적 문화’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
- 두 번째는 지배적 문화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 나름의 카테고리를 창조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‘지배적 문화’를 수정하고 혁신해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’라고 하는 점이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우리가 현실을 인지할 때 일상언어의 카테고리 사용에 많은 부분 제약을 받고 규정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Sacks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.

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다시 주부 감금사건으로 돌아가서
- 이 카테고리는 ‘정신장애자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두렵다’라고 하는 담론을 만들어 낸다.
- 그 담론이 반복되면 그 담론은 현실을 만들어 내게 된다.
- 그러나 이 담론 자체 명확한 편견이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그런데 ‘지배적 문화’를 아무런 위화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‘그럼 그렇지’라고 기사 의 ‘의미’를 이 ‘기사’가 갖는 ‘차별성’과 함께 승인해 버리고 만다.
- 도대체 이 기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는가? 가능한 한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쓰자라고 생각하였을까? 아니면 가능한 한 사실에 충실해서 쓰려고 생각하였을까?
- 허나 그 어느 쪽의 의도도 이러한 기사의 글쓰기 방식과 공공적인 담론은 정신장애를 갖고 다양하게 자신의 ‘삶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배제하는 노골적인 ‘권력’이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

- 이와 같이 ‘지배적 카테고리’는 이것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편재되어 있다.
- 우리 저잣거리에 어떤 모습으로 ‘지배적 카테고리’가 있을까요?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즉 우리는 ‘카테고리화’라는 ‘권력’을 미세하게 행사하고 있고 반은 무반성적으로 ‘지배적 카테고리’를 승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카테고리화는 늘 다양한 배제현상, 차별현상과 공범관계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.

주부감금사건의 신문보도의 권 력성

- ‘지배적 카테고리’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억압하고 스스로의 생활세계로부터 그러한 사람들과의 귀중한 만남의 기회를 ‘배제’시키고 마는 것이다.